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의 씨앗을 심는 우리
마태5:9



하나님께서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주 일 낮 에 배 순 서

【 대강절 첫째 주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비 전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52. 햇빛을 받는 곳마다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숨가쁘게 달려온 시간이 어느 덧 일년의 마지막 달에 이르렀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사람이 느끼는 피곤함처럼 우리 영혼은 지쳐있습니다. 남루한 영혼이 부끄럽지만, 두 팔 벌려 맞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소란스럽던 마음이 고요해지고, 흐려졌던 눈빛이 맑아지고, 굳어졌던 가슴이 부드럽게 열리기를 원합니다.

마당을 쓸고 물을 뿌려 손님을 기다리는 집주인처럼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마음에 오시고, 우리들의 관계 속에 오시고, 우리 모든살이의 현장에 와주십시오.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빛으로 임해주십시오. 삶이 제 아무리 힘겨워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의지 처가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벧전2:25 인도자

♠ 교 독 문 30. 시편 139편 다함께

♠ 영 광 송 3. 이 천지간 만물들이 다함께

대표기도 I. 문영혜 집사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성가대

찬 송 358. 아침 해가 돋을 때 다함께

성경봉독 I. 빌2:1-11 인도자

II. 요12:44-50 안정숙 권사

찬 양 성가대

말 씬 I. 이 마음을 기다리라 김재흥 목사

II. 생명은 소명이다 김기석 목사

거듭기도 다같이

헌신의 찬송 448. 이 세상 끝날까지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356. 성자의 귀한 몸(4)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도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이제 참 자유인답게 살아가십시오. 사람들 앞에 놓인 걸림돌은 치워주고, 상심한 영혼들은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안아 살맛을 되찾게 해주는 사랑의 전령들이 되십시오.

다함께 : 아멘, 주님. 이제는 어둠의 행실을 버리고 빛 가운데서 살겠습니다.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부정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본받겠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어와 겨우 사랑과 온유와 겸손의 가녀린 불꽃을 꺼뜨리려 할 때마다 우리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레위기 강해(4)/김재흥 목사	에베소서 강해(27)/김기석 목사
기도 : 최성애 집사	기도 : 김흥기 집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기석 목사 김기석 목사	노순옥 권사 조병무 장로	인도자 최영선 집사

11월	영접위원	방문성	김용진	박재실	박효선	고속이	박경선
	헌금위원	조병무	이호원	김훈동	김필순	송양진	박홍재

완벽함의 불편함

언젠가 조카의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 중에 <나의 잃어버린 한 조각 (My Missing Piece)>이라는 짧은 그림 동화를 읽은 적이 있다.

몸의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 온전하지 못한 동그라미가 있었습니다. 동그라미는 매우 슬펐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동그라미는 잃어버린 조각을 찾기 위해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을 하며 동그라미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는 나의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조각 어디 있나요.

하이-디-호,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습니다.”

동그라미는 때로는 비를 맞고 때로는 눈에 묻히고, 또 때로는 햇볕에 그을리며 잃어버린 조각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런데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으므로 빨리 구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가끔 멈춰 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쉬면서 길가에 핀 꽃 냄새도 맡았습니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함께 구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나비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바다와 늪과 정글을 지나고 산을 오르내리던 어느 날, 혼자 떨어져 있는 조각을 하나 만났습니다. 너무 반가워 떨어져 나간 귀퉁이에 맞춰 보니 그 조각은 너무 작아 동그라미의 몸에 맞지 않았습니다.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다시 조각 하나를 만났으나 그 조각은 너무 컸습니다. 다음 조각은 네모 모양이라 맞지 않았고, 또 그 다음에 만난 조각은 너무 날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각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 조각은 자신의 몸에 꼭 맞을 것 같았습니다. ‘맞을까? 맞을까?’ 궁금해하며 맞춰 보니 아주 꼭 맞았습니다. 동그라미는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꽃 냄새도 맡을 수 없었고요. 확확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노래는 부를 수 있겠지,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았답니다>라는 노래를 부르려고 했습니다.

“내해 헤어버진……초각글……착잡답네다. 헉.”

아, 너무 빨리 구르다보니 노래도 부를 수 없었습니다.

완전한 동그라미가 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동그라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며 노렸습니다.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습니다.♫”

그때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의 머리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완벽함의 불편함’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동화이다. 아무 것도 부족함이나 모자람이 없다는 것은 어찌면 걸보기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멋진 일이 아닌지도 모른다. 아닌 게 아니라 천재라 불리는 유명한 연주자나 운동선수들이 간혹 외로움을 호소하며 ‘보통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간 동그라미가 남이야 뭐라든 삐뚤삐뚤 천천히 구르며 길을 가다가 멈춰 서서 벌레와 이야기도 하고 꽃 냄새도 맡는 것이 완벽한 몸으로 너무 빨리 굴러서 헐떡거리며 노래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동그라미 삶보다는 나아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내가 동그라미라면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 군데군데 이가 빠져 어리둥절한 눈으로 두리번거리며 아주 천천히 굴러가는 동그라미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도 게으른 내가 감당하기에는 세상일이 너무나 바빠 헐떡거리고 있으니, 그리고 보면 어렸을 때 재능을 다 살려 완벽하고 세련된 동그라미가 되지 않은 것은 천만다행이다.

그래서 이렇게 더운 여름날 보통밖에 안 되는 재주로 보통밖에 안 되는 글이나마 마감 시간 전에 끝내려고 열심히 글자판을 두드리고 있는 게 힘들지만, 이게 끝나면 오늘은 공부는 덮어두고 좋아하는 사람과 저녁 약속까지 해 두었다.

보통밖에 안 되는 딸이 보통밖에 안 되는 글을 쓰느라 진땀 흘리고 있는 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어머니가 거실에서 전화로 조카가 기말고사를 망쳤다고 하소연하는 동생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신다.

“야, 망쳤으면 어쩌냐. 그저 중간치기만 하면 된다. 보통이 최고다!”

—장영희, <<내 생애 단 한번>> 중에서

매일 저녁

매일 저녁 너는 너의 하루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날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는지,
그날 하루의 행동이나 신의가 흠족했는지,
불안과 후회 속에서 절망하지는 않았는지,
너의 사랑의 이름들을 전부 불러보고,
미움과 과실을 가만히 고백해야 한다.
모든 나쁜 짓을 속으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어떤 그들도 침대 속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한다.
모든 걱정을 영혼에서 떨어내어
그것들을 멀리서 어린애처럼 쉬게 해야 한다.

그런 다음 깨끗해진 너의 가슴속에서 자신 있게
네게 가장 사랑스러운 것을 희생해야 한다.
이를테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어린 시절을.
보라, 이제 너는 순수해져, 시원한 잠의 샘물을
한잔 깊이 들이킬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황금빛 꿈들이 다정히 손짓하고
해맑은 정신으로 새로운 날을
영웅처럼, 승리자처럼 시작하는 샘물을.

(헤르만 헤세)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심방전도사	: 장영숙
원로목사	: 박정오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성가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윤선 안홍숙 한선희 김수진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춘려 김철수 유영남 김용진 박효선 백묘현 최종원 정완수 김재광
배상순 김혜권 이유선 방극숙 김훈동 한인철 조윤숙

월정헌금:

정진경 허광식 김홍기 황원순 박준희 이기분 박정석 고숙이 송의섭
이경남 임수연 임원민 이은자 박병구

감사헌금:

김재흥 최희영 한인철 조윤숙 조병무 송양진 방문성 박혜경 박창운
허정윤 박두석 고재중 권채영 조항범 오현정

생일감사헌금: 임수연 한창희 구도헌금: 김철수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정 두 리	김 애 경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박 홍 엽	김 윤 수
안 디 옥	임 정 자	곽 권 희	이 춘 희	이 소 순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곽 혜 자	김 명 순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안 정 숙	박 옥 순
베 다 니	임 창 선	박 홍 재	김 순 복	백 묘 현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송 의 섭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숙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이 기 분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강 순 배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구 성 실	안 길 상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흥 숙	오 현 정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정 영 선	김 희 우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유 경 순	김 수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이 영 란	배 삼 순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박 혜 경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강절** : 오늘부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기가 시작됩니다.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자리를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2. **임원회** : 예배 후 교육관에서 11월 정기 임원회가 있습니다.
3. **월례회** : 예배 후 나오미 선교회 월례회가 있습니다.
4. **후원자 대표 모임** : 일인 일구좌 후원 운동의 실무를 담당할 각 단체의 대표자들의 모임이 임원회 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5. **교사교육** : 오후 예배 후에 4/4분기 교사교육이 교육관에서 실시됩니다.
6. **당회** : 교회가 걸어온 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해의 일꾼을 뽑는 당회가 12월 11일 오후 2시에 지하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7. **공천위원회** : 당회를 준비하기 위한 모임으로 12월 4일 오후 3시부터 담임목사실에서 열립니다.
8. **새벽기도회** : 대강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12월 5일(월) 12월 25일(일)까지 석 주 동안 열립니다.
9. **세례·입교 교육** : 세례 및 입교를 신청하신 분들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교육에 꼭 참석하십시오. 오후 1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10. **초대** : 기독교환경운동연대 2005년 회원의 날 행사가 11월 28일(월) 오후 7시부터 신도림역 근처에 있는 갈릴리교회에서 열립니다. 많이 동참하여 격려해주십시오.
11. **신앙실천** : 신앙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우리가 꼭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것' 없이 사는 연습을 해보십시오.
 * 식당 봉사 : 고린도 속
 * 헌화 : 박창운 권사 허정윤 권사 (결혼기념일)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6:0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